



03 사람들

최도진 위원장이 이끈 비상대책위원회

04 학교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개표 결과

05 학교

전공자율선택제와 신설학과 소개



▲ 2024 JJ-테크노 페스타에서 특강을 하는 김도연 이사장의 모습 (사진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JJ-테크노 페스타 성황리에 마쳐

지난 1일 우리 대학 하림미션홀에서 JJ산학협력주간을 맞아 지·산·학·연 협력 축제인 '2024 JJ-테크노 페스타(JJ-Techno Festa)'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JJ-테크노 페스타의 첫 순서로는 우리 대학의 2024년도 LINC3.0 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었다. 다음 순서는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도연 이사장(현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의 '막 오른 인공지능(AI) 시대 그리고 미래 인재'라는 주제의 특강이었다. 이후 산학협력 20주년 기념 공로자 시상, 우수 가족기업 명패 증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수기 공모

전 시상식,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작품 시상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작품의 경우 현장에서 실물을 감상할 수 있었다.

박진배 총장은 "지역의 산학협력을 선도하면서 성장한 전주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에 맞춰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전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전주대 수퍼FESTAR' 수험생에게 전하는 꿈과 도전의 메시지



우리 대학은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4주간 총 15회에 걸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행사 '전주대 수퍼FESTA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 예술관의 JJ 아트홀과 학생회관의 수퍼스타홀에서 진행되며, 수능이라는 큰 여정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진학과 미래를 고민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근영여고, 동암고, 솔내고 등 전주 지역 22개교가 참여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개회식과 함께 교내 동아리들의 공연이 30분간 진행된 이후 10분 동안 입시설명회가 이어져 수험생들이 전주대학교 및 대학 진학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10시 40분부터는 우리 대학 공연방송연기학과와 음악학도가 주관하는 문화 특강 및 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교양 특강과 기타 체험 활동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교내 동아리 공연으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참여 고등학교 사정이나 행사장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지난 18일에는 본교 경찰학과를 졸업한 유튜버 '모험생' 안성준 강사를 초청하여 20대를 앞둔 청춘들에게 특별한 강연을 선사했다. 강연의 주제는 '모험과 도전'으로,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단순한 입학 정보를 넘어, 대학의 문화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 지역 상징 마스크트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지난 5일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이 주관한 지역 상징 마스크트 디자인 개발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마스크트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20여 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공모전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재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우수상 3팀과 장려상 4팀이 선정되었다.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성과 친근감을 동시에 전달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비빔이’를 비롯하여 순창 명물 고추장을 형상화한 ‘장독대감’, 전주 명소 5곳을 동물화한 ‘조이주 프렌즈’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전주전의 수달을 이미지화한 ‘달수’와 ‘진달이’, 군산 명물 짬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호랑이 캐릭터 ‘산군’, 전주 부채 ‘산홍’ 등 네 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6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산학협력 엑스포’ 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역 컨소시엄’ 부스에 전시되었다.

우수상을 받은 강아연 학생(일본언어문화학과)은 “지역사회와 전주의 고유한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조이주 프렌즈로 전주의 전통과 따뜻한 지역적 감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시상식에 자리한 이용욱 HUSS 사업단장은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라며,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우리 학교에 열정적인 인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런 기회를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HUSS 캠프를 소개하며 “4박 5일간 전국 20개 대학 200여 명의 학생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집중 유학 캠프를 준비 중이다.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학과·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 HUSS 사업단은 ‘지역 가치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와 협력해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추수 감사예배와 장학금 전달식 진행

대학교회는 11월 13일 같은 달 28일 있을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감사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재직 동문회 등 대학 구성원이 참석해 함께 자리를 빛냈다.

먼저 찬송가로 시작한 후 학교의 주요 성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LINC3.0사업단 김형균 과장은 우리 대학의 60주년 맞이 및 2년 연속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평가 및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의 우수한 평가, 카카오 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예배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김종홍 목사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며, 명예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신앙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이 지난 6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6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설교를 끝맺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의 주관으로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심사 기준은 학업과 신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들로, 교수선교회 소속 교수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수혜 학생들은 신학과, 재활학과, 한국어문학창작학부 등 다양한 학과와 학부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추천 교수들이 박진배 총장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추수 감사예배 뒤 진행된 장학금 수혜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 전주대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우리 대학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구 지역혁신센터)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예술관 B110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주제로 하여 대학 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총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그 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디자인,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디자인,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디자인이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대학의 재학생(교직원은 재학생과 공동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학과의 학생이 참여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디자인 분야로는 청소부의 편의성을 고려한 ‘대학생 디자이너’ 조의 산업디자인학과 윤지민, 이민욱 학우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디자인한 ‘이주연’ 조의 시각디자인학과 이주연 학우가 총장상을 받았다. 이어서 배고픈 괴물 쓰레기통을 주제로 한 ‘영민팀’ 조의 패션산업학과 김영민 학우가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장상을 받았다.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디자인 분야로는 야외매트, 백팩, 하이브리드 제품을 활용한 ‘오영서’ 조의 컴퓨터공학과 오영서 학우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상을 받았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디자인 분야로는 차량차단봉(블라드)에서 착안한 ‘팀장은 텅장’ 조의 기계자동차공학과 장준혁 학우와 재활용 플라스틱 보온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윈스타’ 조의 산업디자인학과 박예찬 학우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상을 받았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063-220-3171)로 할 수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송단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목소리

최도진 위원장이 이끈 비상대책위원회



대학 생활의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도진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농촌 봉사활동, 국토대장정, 대동제, JJ체전 등 많은 행사를 시행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제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도진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제20대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장이자, 전주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도진입니다.

Q.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었고, 단과대학 자치기구장 중 한 명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으며, 학생들과 학교 간의 가교의 역할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행사들과 학사 문제, 학교 시설, 복지 개선 등 학생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2024 전주대 대동제입니다. 대동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가장 큰 행사로, 학우들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학우들이 모두 모여 화합을 이루고 전주대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사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신 학우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대동제 일꾼으로 함께했던 대동제 TF 분들에게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Q.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폼 등 SNS를 통해 학생 의견을 수집합니다. 또한 매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단과대학의 회장단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내부 회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의견은 학교 측과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예상치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은 대동제에서의 백마 존 운영 문제였습니다. 백마 존은 무대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마련된 재학생만을 위한 구역으로 축제 2일 차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 학교 측과의 협의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백마 존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학우들에게 운영 무산 사유를 해명하겠다는 약속, 둘째는 2025년 대동제 축제 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2024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더 나은 전주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구성될 총학생회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주대학교 자치기구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주대학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의 역사가 되고, 학교의 자랑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를 시행했다. 투표는 작년에 이어 온라인(전주대학교 inSTAR)으로 진행됐다. 선거에는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및 경영대학, 문화관광대학, 미래융합대학, 사범대학, 인문콘텐츠대학, 의과학대학의 6개 단과대학에서 단일 후보가 출마하여 찬반투표로 이루어졌다. 미래융합대학의 선거는 타 자치 기구와 별도로 이르게 시행됐다. 14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18일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4번 'NOW', 문화관광대학 기호 3번 'CONNECT: U', 사범대학 기호 1번 '결', 인문콘텐츠대학 기호 1번 '결'이 당선됐다. 투표율 35%를 넘지 않은 자치 기구는 19일까지 연장 투표를 진행했으며, 연장 선거 결과 총학생회 기호 1번 '결', 경영대학 기호 1번 '결', 의과학대학 기호 1번 '결'이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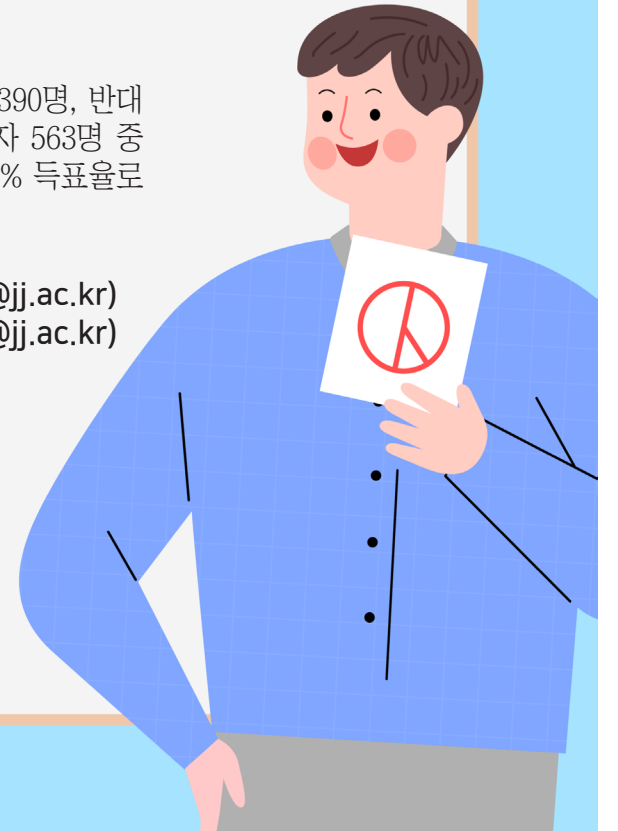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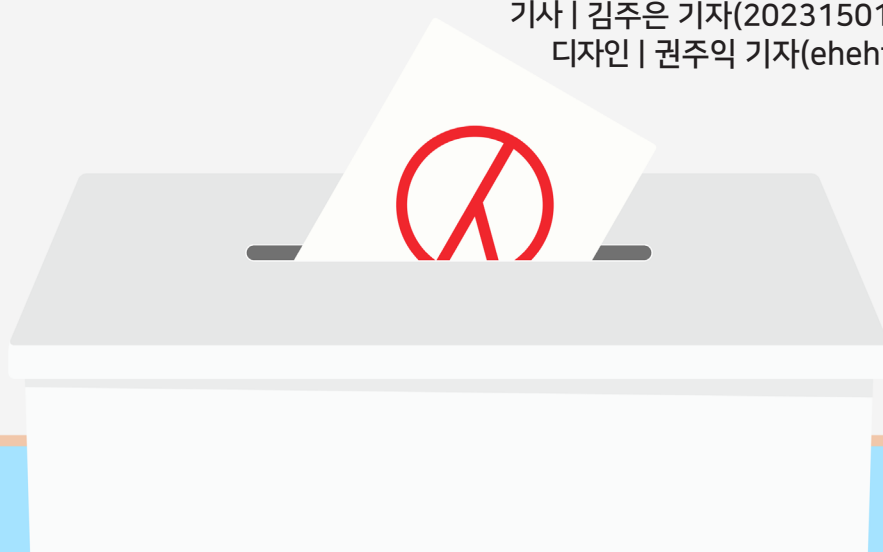
총학생회는 유권자 8,795명 중 3,108명이 투표해 35.34%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2,861명, 반대 73명, 무효표 174명으로 94.40%의 득표율을 얻어 '결'이 당선됐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유권자 103명 중 50명이 투표하여 48.54%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49명, 반대 0명, 무효표 1명으로 98%의 득표율로 'NOW'가 당선됐다.

경영대학은 유권자 1,195명 중 463명이 투표해 38.74%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451명, 반대 12명, 무효표 0명으로 100%의 득표율을 얻어 '결'이 당선됐다. 문화관광대학은 유권자 804명 중 296명이 투표하여 36.82%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276명, 반대 20명, 무효표 0명으로 100% 득표율로 'CONNECT: U'가 당선됐다.

미래융합대학은 유권자 224명 중 126명이 투표해 56.25%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122명, 반대 4명, 무효표 0명으로 100%의 득표율을 얻어 '하랑'이 당선됐다. 사범대학은 유권자 723명 중 272명이 투표하여 37.42%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257명, 반대 15명, 무효표 0명으로 98%의 득표율로 '결'이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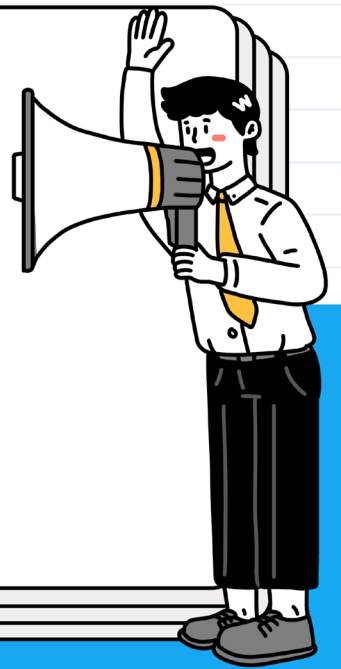
의과학대학은 유권자 1,335명 중 532명이 투표해 39.85%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390명, 반대 142명, 무효표 0명으로 100%의 득표율을 얻어 '결'이 당선됐다. 인문콘텐츠대학은 유권자 563명 중 200명이 투표하여 35.52%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195명, 반대 5명, 무효표 0명으로 100% 득표율로 '결'이 당선됐다.

기사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권주익 기자(ehehtk@jj.ac.kr)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자유선택제와 신설학과 소개



우리 대학은 2025년 학사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940호에 '달라진 학부·학사 구조와 전과 제도 알아보기'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대학의 전공자유선택제의 세부 내용과 신설 학과 두 곳을 소개한다.

전공 선택권을 제공하는 자유전공학부

'전공자유선택제'는 교육부가 강조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인문대학과 경영대학이 단과대학 통합 모집을 했다. 더불어 '무전공 제도'에 해당하는 자유전공학부 176명의 신입생도 모집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학사제도를 정비해왔다. 전과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전과 심사도 학과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 또 다양한 전공 교육을 위해서 연계, 융합 전공과 마이크로전공을 신설 및 개선하고, 여러 개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으로 입학 시 특정 학과의 소속이 아닌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입학하는 무전공 제도를 추진한다.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짧게는 한 학기에서 길게는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전공 탐색의 시간을 거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 다만, 모집 단위 정원을 국가 행정부처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 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생의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진단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 탐색을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전공 맞보기'와 '직무 기반 전공 탐색' 교과목을 배치하여 심층적인 전공 탐색 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 학기 동안의 전공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 선택 이후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브릿지 교과목'도 운영한다.

특히 입학 시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바로 Residential College(RC) 제도이다. 약 8명의 동기와 팀을 이루고 각 팀에는 지도교수와 선배 멘토를 각 1명씩 배정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RC 공동체를 위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 선택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자유전공학부가 주관하는 후속 공동체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선택한 전공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산업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대학 본부 직속 기관으로 졸업 후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와 올해 신설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펫로스 증후군 치유 분야와 같이 반려동물을 넘어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산업학과에서는 동물행동학, 동물 복지학, 반려동물영양학, 애견행동지도실습 등을 배운다. 동물행동학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동물의 진화적 배경과 생태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동물 복지학은 동물의 생리학·행동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나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반려동물 영양학에서는 반려동물의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종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식이 요구량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식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애견행동지도실습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첨단 교육환경을 위해 실내·외 연습장, 펫푸드 조리/미용/수의학 실습장 등을 갖춘 총면적 약 400평 규모의 건물도 신축할 예정이며,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서비스 러닝도 제공한다.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은 연극, 음악, 무용 등 무대 위의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정의로 시대 흐름에 맞춰 음악, 예술 간 경계를 허물고, 예술경영을 더한 교육까지 진행한다. 공연예술학과는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도모하며, 공연예술 분야의 전통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독창적인 캡스톤 프로젝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연예술학과는 연극 전공, 음악 전공, 예술경영 전공 총 3개의 전공으로 분류해 학생을 모집한다.

먼저, 연극 전공에서는 연극에 필요한 연기, 무대, 조명, 음향, 연출 등 모든 요소를 배운다.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VFX(시각효과)를 연극에도 도입해 제작한다. 프로덕션 맵핑, 가상현실 콘텐츠, 실감미디어(XR, AR, 미디어아트) 기술들도 함께 교육한다. 졸업 후 진로로는 극장 계열로는 연출가, 작가, 무대미술감독, 영상/무대/조명/음향디자이너로 나아갈 수 있으며, 연극계열로는 배우, 1인 크리에이터, 성우, 아나운서, 모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 전공은 클래식음악 계열과 실용음악 계열로 나뉘어져 있다. 클래식 계열의 진로는 클래식 연주자, 성악, 작곡가가 있으며, 실용음악 계열은 실용음악 연주자, 보컬 및 뮤지컬 가수, 작곡가 등이 있다. 음악 전공의 경우 정기연주회를 통해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경영 전공은 예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경영, 정책 설계로 이어가는 예술 행정, 예술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예술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문화재단 등을 학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교육과 탐방도 진행한다.

4년 동안 고생 많았어!

문화융합대학 졸업전시회, 4년간의 땀과 노력

<공연방송연기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는 11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제23회 졸업 공연 연극 '느릅나무 밑의 욕망'을 공연했다. 이번 졸업 공연은 현대 미국 연극의 거장 유진 오닐의 대표작 'Desire Under the Elms'를 이형식 번역가의 대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인물 간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감정을 통해 극적인 전개를 선보인 이 작품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공연은 우리 대학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열렸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많은 관객에게 감동

을 전했다. 연출을 맡은 강정민 학생은 "이 공연을 통해 욕망의 회로에 놓여 있는 주인공들을 살펴보고 욕망이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지난 4년간 치열하게 공연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제23회 졸업 공연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공연 소감을 전했다.



번호	영화명	감독	출연	장르
1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2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3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4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5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6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7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8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9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0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1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2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3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4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5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6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7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8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19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20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21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22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23	우리의 영화	김민준	김민준	단편

<영화방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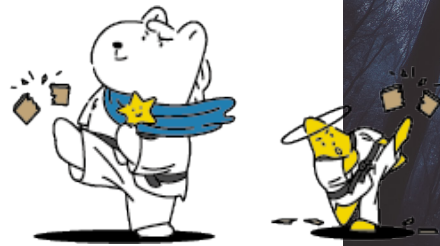
영화방송학과는 12월 14일,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3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졸업영화제의 주제는 'UFO(urri film oddae)'로 '우주를 향해하는 UFO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성장하자'는 깊은 의미와 함께 'Urri Film Oddae(우리 영화 어때)'라는 재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졸업영화제는 졸업 작품 상영, 감독과의 GV(Guest Visit), 관객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화 상영 후 진행되는 GV에서는 감독의 연출 의도나 제작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토부스, 각종 굿즈와 잡지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졸업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즐길 거리

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제 준비위원회 김가을 위원장은 "Every passing minute is another chance to turn it all around(모든 지나가는 순간은 모든 걸 뒤집어 버릴 또 다른 찬스야)"라는 영화 『바닐라 스카이』의 대사처럼, 졸업생들에게는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이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며, "졸업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열정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벤트 및 문의사항은 인스타그램(@jju_film_arch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학과>

세계를 놀라게 한 특별한 공연으로도 유명한 우리 대학 태권도학과가 제11회 졸업공연 '낙원: 모든 날들이 유서였다'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알린다. 이번 졸업 공연은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으로, 수의를 입은 독립운동가가 지난날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는 동료들의 피를 눈앞에 두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에게 묻는다. "만약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공연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관객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12월 21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11시와 15시에 나누어 1, 2부를 진행된다. 관련 소식은 태권도학과 학생회 인스타그램(@jj_university_tk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학과 선현석 총주장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게임콘텐츠학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림을 관람하는 학생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학생, 재밌는 소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학생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게임콘텐츠학과의 제13회 졸업전시회, '천체유람' 현장이다. '천체유람'에는 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로 제작된 13종의 게임이 전시되었으며,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다양한 기획 문서와 그래픽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전시된 작품은 어드벤처, 퍼즐, 액션, 타이쿤, 공포, 탈출 등 다양

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게임콘텐츠학과는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졸업전시회에서의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기사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전주대, 2024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개최 -지역교회와 동행하는 전주대학교-

전북지역 기독교 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예술관 JJ아트홀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2024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 행사는 60년동안 전주대학교와 함께해온 지역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행사로 신동아 학원 차종순 이사장,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였고, 국악 찬양사역자 나경화 목사가 특별공연을 준비하였으며, 이날 전북지역 목회자 사모들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본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앞으로도 기독교의 가치를 지역에 실현하고, 지역 모든 주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요로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 하면서 세미나를 기획한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은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통하여 전북지역 목회자 사모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고, 누리며 받은 은혜를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집승의 수준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지혜 수집가 아굴의 촌철살인 잠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전무하다" 본능이 다스리는 짐승이면 양호하다. 고삐 풀린 광기를 생각과 몸에도 풀어놓은 사람의 악한 본성보다 나오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총명이 한 조각도 없다는 아굴의 겸손한 붓끝에서 나온 지혜의 당도는 송이꿀을 훔쩍 가능하다. 하늘 정도는 출입해야 입술로 지혜 깨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굴은 중형무진 떠도는 바람을 그 장중에 소집하고 옷을 물의 별장으로 삼으시고 지구의 끝을 가뿐하게 측량하는 분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물음표를 다는 탐구자다. 무지를 인정하니 학구열은 불덩이, 짐승의 높이까지 낮추니 탐구심은 하늘까지. 아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한 이오타의 첨가와 삭제도 불허한다. 부와 빈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도 거부하되 이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가 고프면 이웃을 부인하는 인간의 변덕 때문이다. 자신을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지독한 오물과의 동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무리에게 한 뭉치의 모순을 달아준다.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의 습성이 사회의 등쪽에 달라 붙어 약자의 선홍빛 혈액을 빠는 갑의 하극상에 제대로 된 냉소를 퍼붓는다. 나는 짐승의 지성을 가졌다 아굴이 쏟아내는 지혜의 바다에 경악을 빠뜨린다. 짐승의 수준이 이런 정도라니... 지성의 전당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기도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편 136편1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개교부터 지금까지 전주대학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사학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대학교를 섬기는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주대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며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들을 대할 때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직원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학생들을 저희 전주대학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전주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사회에 나아가 실천하는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여 섬김의 리더쉽을 기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전주대학교와 동역하는 지역 교회와 단체들을 위해 기도합니

다. 전주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역하는 지역 교회와 단체들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 안에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캠퍼스 안에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의 기회 그리고 열매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전주대학교의 향후 100년을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성은 교수
(선교지원실)

기자칼럼

광주의 함성, 기아타이거즈의 V12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지난 10월 28일, 역대 최다 관중 수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가 막을 내렸다. 정규시즌 우승팀은 기아타이거즈, 1위부터 5위까지 팀들의 경쟁인 속칭 '가을야구'의 마지막 대결이었던 '코리아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라이온즈를 7-5로 이겨 통합 우승을 거둔 팀도 바로 기아타이거즈였다. 기아타이거즈의 이번 최종 우승은 통산 12번째이며 37년 만의 홈구장 우승이다.

전적 4대 1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기아타이거즈의 9회 말, 마무리 투수였던 정해영과 포수 김태군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삼진 아웃을 잡아마자 선수 모두가 경기장 중앙으로 달려 나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경기 유격수였던 박찬호와 2루수 김선빈은 눈물을 흘렸고,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러 온 수많은 팬이 큰소리로 응원가를 불러 광주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 찼었다. 또한 이날 경기가 끝난 후 기아타이거즈는 우승 공약으로 SNS에서 유행하는 일명 '뽀빠뽀빠 춤'을 단체로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아타이거즈의 종합 우승을 축하함과 동시에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할인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도 커졌다. "37년 만의 홈구장 우승이니 37% 할인을 할 것이다", "별다른 할인이 없을 수도 있다"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기아에서는 이런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1일, '기아 세일페스타'를 열어 2024형 니로 EV 100대와 EV6 1,200대를 각각 9%, 7% 할인하고, 이달 30일까지 기아 차 8개 중, 5,000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최대 12%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더 뉴 K5 7%, △더 2024 K8 하이브리드 7%, △더 2024 K9 3%, △더 2024 니로 하이브리드 3%, △더 2024 니로 EV 9%, △더 뉴 EV6 7%, △봉고 III LPG 터보 10%, △봉고 III EV 12%다. 또한 기아는 전국의 기아 지점, 대리점, 드라이브 센터를 방문해 해당 거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더 2025 EV9(1명), △더 뉴 EV6(1명), △기아타이거즈 24 어센틱 홈 유니폼(50명), △기아타이거즈 24 어센틱 정규시즌 우승 기념 모자(200명), △기아타이거즈 레시 인형(3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아타이거즈가 준비한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타이거즈는 종합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1차로 우승 티셔츠와 모자, 기념구 등 13종의 기념

상품을 온라인 티스토리에서 지난 12일까지 예약 판매했으며, 선수용 점퍼와 패딩, 주요 어센틱 의류와 방한용품을 30%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 2차 상품으로는 종합 우승 티셔츠와 기념 유니폼, 포토 북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타이거즈 선수단도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오는 30일 광주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광주은행에서 출시한 '기아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적금'의 가입자들은 포스트시즌 진출(연 0.05%P), 정규시즌 우승(연 0.10%P), 한국시리즈 우승(연 0.10%P)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 만기 해지 시, 총 연 0.25%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37년 만의 홈구장에서 역대 최다인 통산 12번째 우승'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기아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는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정규 시즌 동안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 주요 전력들의 부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아타이거즈의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아타이거즈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종합 우승은 시즌 초부터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져 준 투수들과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 타자들, 갑작스러운 교체와 최연소 감독이라는 좋지 않은 시선에도 팀을 이끌어준 이범호 감독,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 올려준 코치들, 기아타이거즈를 지지해 주는 기아의 모든 관계자, 마지막으로 굵은 날씨에도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팬들.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종합 우승으로 인해 기아타이거즈 팬들은 다음 정규 시즌까지 '24년 시즌 종합 우승을 한 프로 야구 구단의 팬'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로 살아가게 된다. 필자는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취미 생활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청춘이 되는 야구를 정말 사랑하며 자신 있게 기아타이거즈의 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아타이거즈가 써갈 역사와 모든 발자취를 기대하며 모든 선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야구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교수칼럼

양자역학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박현제 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나는 어릴 적부터 물리학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학부생 시절 <양자역학>을 수강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끝없는 수학과 그 난이도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강의 시간 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C만 받지 말자'는 타협적인 목표를 세웠다. 당시 수강한 <양자역학>에 대한 기억과 상처는 내가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랫동안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트라우마는 잊히는 것 같았다. 감사하게도 나는 2024년 9월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의 신입 교수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기쁨은 1주일도 가지 못했다. 온갖 걱정이 닥치기 시작했다. '내가 교수가 될 자질이 충분할까?', '학과 교수님들이 나를 좋아할까?' 등등. 하지만 당시 가장 큰 불안은 그때의 그 <양자역학>을 내가 강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정말이지, 내가 겪은 좌절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임용일 이전까지 여러 책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였다.

양자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실험이다. 밀폐된 상자 속에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시에 독가스가 배출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갇힌 고양이는 죽거나 살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가 다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산 복권의 당첨은 굵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의 생사는 상자를 열어보아야만 한다. 그 이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가 공존하는 중첩(superposition) 상태에 있을 뿐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굵지 않은 복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가 '죽은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라는 신비로운 현상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안타깝게도 죽었는지, 아니면 다행히도 살아남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상자를 열기 전에 미리 애도할 필요도, 또 안도할 필요도 없다. 우선 내 손으로 직접 상자를 열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임용 이후에 벌써 여러 학생과 상담했다.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듣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대학생 시절 나는 내 미래와 인생에 대한 걱정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불안은 불안으로만 이어질 뿐, 대부분은 큰 의미가 없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앞날을 맞이할 용기도 없었으면서, 마냥 불안했다. 그렇다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 성실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다. 다만 나는 조바심만 있던 게으른 학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불안하기 이전에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우선 가지라고.

한 학생과 상담하다가 무심코 나는 <양자역학> 강의의 부담감과 신입 교원으로서 적응에 대한 불안을 솔직히 말했던 적이 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군요." 그렇다. 학생이든 교수든, 우리 모두에게는 불확실한 현실 상자가 있다. 하지만 잊지 말자. 상자를 열기 전까지의 불안은 현실이 아닌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열어본 상자의 결과는 이러하다. <양자역학>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비로소 나는 대학생 시절에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다만 너무 겁을 먹어 내가 도망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는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내 불안과 일치했다. 어찌겠는가? 나는 교수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뿐이다. 다만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성적의 상자를 열어보길 바랄 뿐이다.

기자칼럼

인공지능의 두 얼굴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사진을 수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부감도 함께 느낀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사고방식, 정보 접근 방식, 윤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요구하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1950년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으며, 1955년 존 매카시 다트머스 교수가 작성한 다트머스 회의의 제안서에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1970~80년대에는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기술이 없어 AI 연구의 진전이 더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술과 기계학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인공지능의 데이터 패턴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발전해 왔다.

최근 스포티파이와 영국과 호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DJ'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노래 추천 방식이 아니라 ChatGPT처럼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취향을 결합한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듯 AI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생성형 AI를 잘 이용하면, 대학생에게는 자료조사부터 발표문 작성까지 빠르고 편리한 보조 팀원이 생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도움을 준다. 또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동시에 그림이 완성되며, 동시통역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도 숨어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 사진, 목소리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가 하면, 어도비 이용약관에서는 사용자들의 창작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어도비 측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창작자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어도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도 게시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을 넣고 있다. 게시물을 AI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어로 표현된다.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저 결과창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결과창의 내용을 읽기만 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로 발전될 우려도 존재한다. JJ 권장 도서로 선정된 조지 오웰의 『1984』를 최근에 읽었다. 소설 속 세계에서 미래 정부는 '빅 브라더'와 '텔레스크린'을 이용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며, 정부의 권력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 사회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인공지능 발전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는 것과 같이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이나 사회 현상을 보고 비판적인 글을 직접 작성해보는 등 자신의 사고와 창의력을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Co-hosts the '2024 Workshop on Strengthe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s Human Rights Center co-hosted the "2024 Workshop on Strengthe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workshop, held to revitalize networks between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took place in the Honam and Jeju regions as a single-day event.

Held at Jeonju University, the workshop brought together 19 working-level officials from the Human Rights Centers of universities, including Gunsan University,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to foster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seminar included: △ sharing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from professionals at established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 regional case studies on operati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and △ a networking session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centers in the Honam and Jeju regions.

Afternoon sessions featured mentoring led by experts, including Kim Mi-ra, a research professor at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Baek Min-hyuk, investigation counselor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Yang Ju-ae, specialist experience officer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nd Kim Sung-chul, head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The mentors facilitated discussions and answered questions, providing insights specific to each region.

Kim Mi-ra, who participated as a mentoring expert, said, "By sharing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encountered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at each university, I hope this serves as a chance for growth among university practitioners."

Kim In-gyu, Director of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expressed, "I am pleased that this workshop allowed practitioners from human rights centers in the Honam and Jeju reg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how, strengthening our network. We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culture across universities."

article Human Rights Center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Successfully Hosts 'JJ Job Fair'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s University Job Plus Center successfully hosted the JJ Job Fair: Grab My Dream Job! on October 6 at the Harim Mission Hall on campus. The event aimed to strengthen networking opportunities between current students and alumni, while enhancing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job-related skills.

The fair featured alumni mentors who shared their expertise on job preparation and real-world experiences in various industries. The mentoring sessions covered themes such as: △ Game planning △ Product R&D △ Application software development △ Data analysis △ Sports marketing △ Fashion design △ Human Resources Management (HRM) △ Case management. Twenty experienced alumni currently working in diverse fields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navigating the job market and succeeding in the workplace.

In addition, a recruitment briefing area hosted presentations and hiring interviews from 12 prominent regional companies, including Harim Co., LG Chem, Vinatech, Jeongseok Chemical Co., and Round Aluminium. These sessions provided high-quality recruitment information and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hips for hiring exceptionally talented employees.

Approximately 800 young people attended the fair. Kim Dong-hyuk, a senior in Computer Engineering who participated, said, "This fair w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gain specific and practical information about jobs and employment. It helped me build the job skills and strategies required for the field while discovering excellent regional companies, right on campus."

Shin Sook-kyung, director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commented, "JJ Job Fair offers a great chance to learn job preparation know-how and gain valuable insights from alumni active in various field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at enhances motivation and confidence, and to helping students design systematic employment roadmaps, starting from their early years in university."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Receives Web Accessibility Quality Certification for Website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on November 4th that its Admissions Office website has received Web Accessibility Quality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Web Accessibility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recognizes websites that provide excellent web accessibility, ensuring usability for all individual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Certified websites that comply with relevant guidelines and standards are awarded a Web Accessibility (WA) certification mark.

With this certification, Jeonju University aim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admission information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admissions pro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e Geun-ho, head of Jeonju University's Admissions Office, said, "Receiving Web Accessibility Quality Certification reflects our commitment to ensuring fair access to admission information for all students." He added, "We will continue to enhance our admissions process so that everyone who visits the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website can easily understand the admissions procedures."

Meanwhile, Jeonju University is operating a special screening pro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tarting from the 2025 academic year, the university will establish new programs in the Department of Free Majors and the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Industry. For more details, visit the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website (<https://iphak.jj.ac.kr>).

article Jeonju University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Museum Hosts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One Grain of Wheat, Falls to Jeonju University

The Jeonju University Museum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on November 11th that it will host a special exhibition titled One Grain of Wheat, Falls to Jeonju University in celebration of the university's 60th anniversary in 2024.

This special exhibition will run until December 31st and reflects on the university's journey while showcasing its strides toward a centennial vision under the 2024 slogan, "100 Years with the Region, 60 Years of the World." Visitors can explore the milestones that have shaped Jeonju University and its aspirations for the future.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highlighting:

- △ Ten years of Jeonju University's development from 2014 to 2024
- △ Contributions to the region and the next 100 years
- △ Global achievements over the past 60 years
- △ Shining moments and superstars associated with the university.

Park Hyun-soo, director of the Jeonju University Museum and curator of the exhibition, remarked, "This exhibition i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document our history. By revisiting the past decad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s history hall in 2014, we aim to emphasize Jeonju University's enduring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its members, and alumni."

For more details about the special exhibition, please contact the Jeonju University Museum at 063-220-2158.

article Jeonju University Museum
Group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全州大学举办“外国留学生校长座谈会”

全州大学为留学生捐赠冬季御寒棉被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11月13日在国际交流院会议室邀请各国留学生代表举办了“2024外国留学生校长座谈会”。

此次座谈会由朴珍培校长主持，参与人员包括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英语课程支持中心主任苏惠珍，以及来自不同国家的留学生代表，共计20余人。会上听取了留学生在生活、学业、就业等方面的困难和诉求，并共同探讨了多种解决方案。

此外，与会者向留学生分享了有关奖学金、学业、就业支持项目、居住及生活信息等内容，同时交换了能够提供实际帮助的意见。

经营系三年级学生黎红万（音译）在会上表示：“通过这次座谈会，我坦率地分享了留学生活中的困惑与困难，同时也了解了其他留学生的经历和挑战。让我深受感动的是，这次学校方面对我们的提问和问题给出了非常有益的解答与解决方案，并且积极采纳了我们的意见。这让我再次感受到全州大学对留学生的高度支持，也让我对未来的校园生活更加充满了信心。”

朴珍培校长在座谈会上表示：“我们学校一直致力于帮助外国留学生顺利适应大学生活。通过‘JJ-Friends Host Family’项目以及在各学院配置专职留学生助教等措施，为留学生提供了多方面的支持。以此次座谈会为契机，我们将通过定期的座谈会和多样化的沟通渠道，继续积极支持留学生。”

另外，全州大学正通过丰富多样的国际交流项目和合作，培养着全球化人才。也为外国留学生提供着良好的学习环境和各种支援。同时，也与地方社会合作，帮助留学生适应韩国的生活与文化，并成长、成功。通过这些努力，全州大学正在提升其在国际教育市场的竞争力，并为吸引更多优秀人才而坚持不懈。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10月29日由国际交流院主办，为外国留学生举行了冬季御寒棉被捐赠活动。

此次活动作为信协社会贡献财团“2024年信协全球爱心传递活动”的一个环节，向在全州大学就读的23名来自东南亚的留学生赠送了御寒的冬季棉被。已持续五年的这一捐赠活动成为优良的传统，为留学生带去极大的鼓励和支持。

全州大学信用协同组合理事长宋泰镇（音译）表示：“帮助留学生在韩国度过一个温暖的冬天，不仅是支持他们的一个实际活动，更是加强社会凝聚力的一种方式。每年通过这样的机会能为留学生提供切实的帮助，我感到非常欣慰。希望他们在韩国积累宝贵的经验，将来成长为优秀的国际化人才。”

来自缅甸的本科生漂昂盛孟扎（音译）表示：“最近特别思念家乡，而在这个时候收到如此温暖的棉被，我真的深受感动。衷心感谢所有提供帮助的人，我会牢记这份关怀，更加努力学习。”

另外，全州大学国际交流院为帮助留学生圆满度过大学生活，运营着多样化的支持项目，包括韩语学习支持、文化体验活动、导师制等。也为留学生们更好地适应韩国社会提供着持续的帮助。

JEBS의 모든 것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11월 영상 다시보기]

•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또간집'
기획 및 촬영: 유보영, 이예진, 김가은, 김수현
편집: 김수현
출연: 유보영, 이예진, 김가은, 김수현, 최윤서

• 전주대학교 수퍼FESTA 개최!

기획: 전지은
편집: 박민서
촬영: 김유빈, 박대한, 최윤서
아나운서: 성보은

[JEBS 인스타 콘텐츠 예고]

• 세계 인권의 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아요!

기획 및 제작: 이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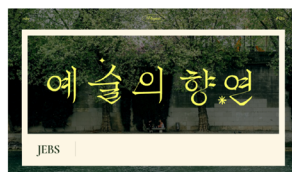
• 원자력의 날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획 및 제작: 최윤서



[교내 라디오 소개]

- 뉴스_정오의 천잠 월, 수, 금 점심방송
- 종교_십자가사랑 화, 목 점심방송
- 음악_크레센도 매일 아침방송, 화 저녁방송



• 자유_예술의 향연
세계적인 예술가와 그의 작품 설명
기획: 성보은



• 자유_키워드캐치
24년도의 주요 키워드를 라디오를 통해 나누는 시간
기획: 양하은



• 자유_베이스볼 이브닝
KBO리그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라디오
기획: 최윤서



라디오 신청곡과 모든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2024학년도 2학기 SUPER 핵심역량진단



진단 기간 : 2024. 11. 25. (월) ~ 12. 27. (금)

1 SUPER 핵심역량 소개

Spiritual
Christianity

영성인성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Universal
Communication

의사소통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Proactive
Challenge

자기개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훈련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

Exploratory
Creativity

창의융합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 및 구현하는 능력

Relational
Collaboration

+형 협력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직·수평적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

2 SUPER 핵심역량 진단 방법

* onSTAR 마이페이지 에서 매 학년도 진단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차트를 제공합니다.



PC

> onSTAR 접속 > 로그인 > 핵심역량 소개 > 핵심역량 진단 페이지



모바일

> 전주대학교 APP > 전체 메뉴 > onSTAR > 핵심역량 > 핵심역량 진단하기

문의전화 | 학생역량지원센터 (063-220-2836)

SUPER 핵심역량 진단은 자기이해 및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